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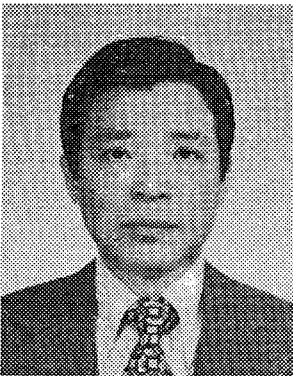


90년대의 환경행정시책 방향

1. 90년대의 의의

국제적, 국내적으로 복잡했던 80년대를 마무리하고 90년대를 맞이했다. 정치, 경제적으로 90년대는 2천년대를 준비하는 시기,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로 생각한다.

한편 환경행정측면에서는 위기와 악화의 해소가 교차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기 측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오염발생시점이 60년대 초의 산업화와 70년대의 중화학공업추진의 본격화에서부터 30~40년이 지나는 시기가 되고,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 중대한 환경사고가 90년대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로 보건데, 대체로 중화학공업에 따르는 산업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의한 사고가 40년여를 지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악화의 해소측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일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었고, 기업체의 공해방지에 관한 가치관도 팽목할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졌다.



김형철 / 환경처 기획관리실장

노사문제보다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 라든지 공해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는것을 최대의 금기로 여기는 기업의 자세변화라든지 공해방지투자정보를 제품홍보 못지않게 신경쓰는 모습, 그리고 환경처의 승격등은 80년대 초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해야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악화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점이 바로 90년대를 맞이하는 환경인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90년대가 갖는 환경상의 의의도 여기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2. 90년대의 환경행정 추진여건

전세계는 90년대를 맞이하면서 국제정치, 국제경제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접치고 있다. 80년대말의 동구권변화가 예고하듯이 사상과 이념의 대립은 퇴색하면서 그에 대한 반동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경제, 군사면에서 침예한 대립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으며, 태평양시대의 개정을 보다 뚜렷하게 예고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제와 연계된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통상다양화에 따라 이른바 "서해안시대"가 말해주듯이 경제구조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89년 타임지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올해('89년)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듯이 지구환경의 위기가 전인류의 공동관심사로 등장하였다.

72년 스톡홀름인간환경회의이후 환경문제에 관한 경종을 계속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으며, 새로이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온도상승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유엔연설에서 미소가 공동으로 2차대전이후 발견한 적은 바로 지구환경의 오염이고, 군비축소와 지구환경위협에 대한 대책이 없는한 국제경제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실파하였는가 하면, 부시미대통령은 90년에 세계환경정상회의를 제안하였고 일본은 세계에공헌하는 일본을 표방하면서 환경문제해결에의 기여를 다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오존층 파괴물질

인 CFC를 조속히 사용금지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는가 하면, 작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환경문제를 주요의제로 하였고, 각국 명사의 모임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식견없이는 대화의 상대를 갖지 못할 형편이 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어떠한가? 지난해 환경의 날에는 대통령께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담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물문제해결을 6공화국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열기만큼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국내의적으로 이렇게 고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환경실상은 적잖게 악화된 상태에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북경, 천진, 멕시코시 다음으로 오염이 심한 국제도시이며, 작년에는 한강하류의 가양에서 시안이 검출된바 있다. 하수처리장의 대폭확충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은 오염의 위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대기오염은 청정연료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별로 없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대책이 그 규모면에서 시작단계에 있기때문에 큰 기대를 갖는 자체가 무리이기는 하지만 결코 총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서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해결해야할 과제와 다가오는 난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90년대에 어떠한 난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 해결해야할 과제들

(1) 상수원의 오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수원오염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라 하겠다. 전국적으로는 약6백여개소의 대소상수원(간이급수원 제외)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댐과 중요하천에 46%의 상수원이 있고, 이들의 오염은 식용수의 식용가능여부와 직결되고 있다. 정수후에 관망이나 물탱크의 부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한없이 확대되겠지만 환경면에서 상수원오염은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가정하수, 공장폐수, 축산오염등 다양하다. 특히 팔당, 대청과 같은 광

성상수원은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등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염이 가중되고, 수온이 양식어업에 적당한 호소는 가두리 양식장이 번창해서 오염이 가속화하고 있다.

(2) 하천의 오염

전국의 거의 모든 하천은 오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시냇가를 찾기 어렵다. 도시관류하천은 하천에 유입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폐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숲이나 산세가 아름다운 곳을 흐르는 하천은 관광객, 위락객이 버리는 각종 오물로 인하여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형편이다.

(3) 도시대기의 악화

인구가 밀집한 도시치고 맑은 공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현실이다. 전국가구의 80%가 애용하는 연탄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일산화탄소 그리고 난방용 벙커C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매4년마다 배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홍수, 특히 버스, 대형트럭등 디젤엔진의 매연이 도시대기오염의 주요인이다.

(4) 넘치는 쓰레기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에 약 2kg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 일본의 1.3kg이나 미국의 0.8kg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다. 그러면서도 국토가 좁아서 매립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물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이 한사코 반대하기 때문에 매립지를 조성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매립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소각방식을 확대해야 하는데 소각시설도 태부족할 뿐 아니라 분리수거체계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쓰레기 처리는 근본적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5) 유해산업폐기물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45천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약 2천톤은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이다. 그동안 일반산업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대부분 매립하는 편법을 썼고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가 처리하여왔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처리가 비일비재했고 처리비용의 고가로 인해서 외국에서도 골머리를 앓

고 있는 것이 바로 유해산업폐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은 본격화 되었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도 많은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지 크게 염려된다. 고도산업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늦기전에 지금까지의 처리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나. 다가오는 난제들

위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잘 알려진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그 이외에도 소음, 유해물, 해양과 토양의 오염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들에 관하여는 더이상의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난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대기중의 중금속과 미량오염물질

생활양식이 다양화하면서 우리주변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오염물질이 주요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물질이 대기중에 증가하고 있는데 납은 유연휘발유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카드뮴은 주로 수입하는 연료에서, 수은은 산업체에서 배출된다. 유연휘발유자동차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겠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PCB, PCP와 같은 물질에 의한 인체피해, 방사능이나 라돈 그리고 석면공해가 벌써 우리의 앞에 크게 부각된 환경상의 난제이다.

(2) 산성비

북구와 영국, 서독,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간의 산성비 피해로 인한분규는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난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지리적조건이 중국대륙의 기류권에 들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산 고유황연료를 아무 정화조치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적잖은 산성비가 측정되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3) 하천의 중금속오염

아직은 뚜렷한 징후가 없으나 작년에 한강하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장래의 하천중금속오염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감을 떨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뚜렷해진다면 모든 정수시설에는 중금속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태가 된다. 중금속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규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4) 유해물관리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화학물질들이 우리주변에 범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성화학물질이 1만여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일본은 3만여종, 미국은 6만여종이 된다고 하며 국제기구에서는 매년 300~500여종의 신합성화학물질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합성화학물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이들중에는 상당한 유독물질도 포함될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지금부터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90년대의 환경행정 시책방향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환경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응비하는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90년대에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90년대에 펼쳐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그러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해 보고 끝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가. 환경정책의 방향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환경여건은 오염요인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으며 오염현상도 더욱 광역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토라는 좁은 환경에서 산업구조는 더욱 고도화되고 토지이용은 더욱 증가될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이나 소비생활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적어도 매년 7~8%의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노동력조차도 흡수할 수 없기때문에 현재의 성장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이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을 확대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래에는 환경보전은 곧 경제개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해온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무공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활동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룩하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이 전부일수는 없으나 적어도 시책의 방향은 그래야만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견해에서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환경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종합개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오염감시활동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국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투자가 생산비의 당연한 일부라는 기업논리를 정립하고, 스스로의 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소비절약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염감시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환경의 파수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환경은 쾌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90년대에는 이러한 전제아래에서 환경시책상 역점을 두어야 할 몇가지 시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역점시책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체적인 시책에 관하여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새로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만을 간추리기로 한다.

(1) 지구차원의 환경보전협력

오존층의 파괴,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기온상승 문제와 같은 것은 범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지구촌의 일원인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과 협력을 강

화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에는 많은 이해가 얽혀있는 것이라는점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는 정보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등에 주재관을 상주시키는 방안과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및 국제회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2) 인접국가간의 협력

중국의 공업화와 우리의 서해안개발등은 황해의 오염과 산성비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서해안개발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컫는 황해오염을 예방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각별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환경과학기술의 개발과 정책발굴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의 도입과 개발은 성장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첩경이다. 따라서 환경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를 확충해야하며 기술과학과 환경인문과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90년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환경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연구기관의 설립이 바람직스럽다. 민간분야의 환경투자를 부추길수 있는 제도 와 정책 예를들면, 환경행정기능배분의 조정, 세제의 보완, 특별회계제도개발, 환경영향평가 기금조성방안의 개발 및 환경오염방지비용부담제도의 정형화등은 환경행정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환경기준등의 재검토

각종의 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은 경제, 사회등 여건에 맞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기업체등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적규제가 가능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오염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90년대의 주요사업이 되어야 한다.

(5) 환경홍보 교육의 강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삼위일체 협력을 위하여는 환경홍보를 과학화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환경교육에 중점을 두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과 병행하여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5. 맺음말

90년대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결코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처의 시책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점을 명백히 하면서 다만 관심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환경행정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